

施

工

事

例

緊急待避港  
新陽港

良質의 骨材 재빨리 確保

# 工期를 短縮

秦 熙 錫 (世紀建設(株) 技術理事)

## 신양항의 위치

추자도는 전라남도 완도군으로부터 분리되어 제주에 편입됨으로써 1946년 8월 1일 전라남도 관할에서 제주도제로 독립되었다.

제주도제가 실시되어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으로 행정구역이 분할되었는데, 북제주군 추자면 신양리(신양항소재지)로 행정변혁과정을 찾아볼 수 있다.

추자면은 유인도(有人島) 4개도와 무인도 38개 군도로 이루어졌으며, 신양항은 하추자도 남단군 제주시에서 해상 65km인 목포와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있다.

신양항은 우리 나라 서남해상과 동지나해역에 출어하는 선단들의 기상악화시 긴급대피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기능시설의 책임이 막중함을 들 수 있다.

## 연 혁

본항은 1971년 수산청(시설국 어항과)에서 제3종 어항으로 지정 고시되어 개발에 착수되었고, 1977년 수리모형실험, 1982년 기본조사 실시, 1984년 지질조사를 하여 1988년도까지 19차 공사까지 시공에 이른 것이다.

## 시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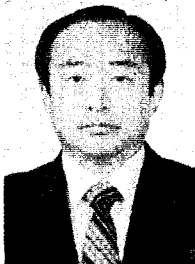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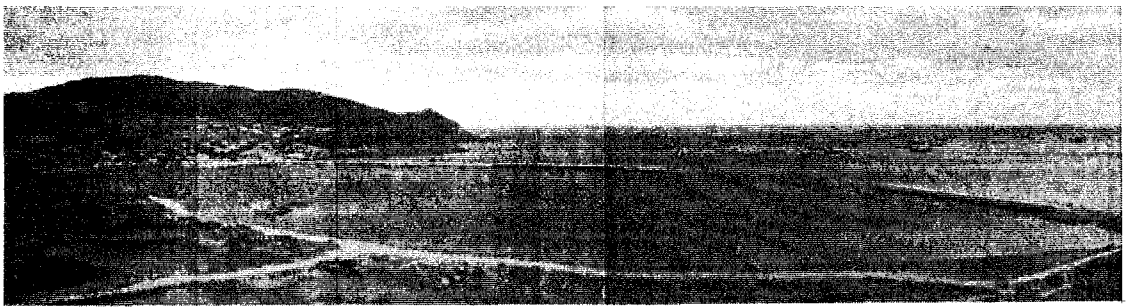
## 목 적

<신양항 시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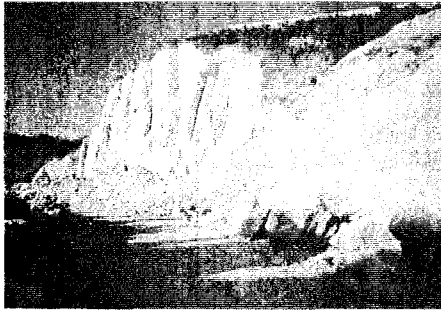
단위 : m, 백만원

시 설 명	총 계 획		기시설('87말)		88년도시설		잔 량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11,050		6,647		1,810		2,593
동방파제	640	5,000	490	3,246	150	578	150	1,176
남방파제	295	3,663	270	3,083	25	580		
물 양 장	525	1,925	125	318	106	190	294	1,417
준 설	19,000	462			19,000	462	231	





①



②



③

① 신앙항 전경  
② 피복석용 석재, 채석현장  
③ 시공현장

## 시공과정 소개

본항 공사는 1971년도부터 착수되었으나 당시의 정부예산사정으로 연간 공사비가 2~3천만원 안팎의 소규모공사로서 물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낙도라는 입지여건 때문에 주항로인 제주까지 최단거리가 65km나 떨어져 있었고 그당시만하여도 공사용 중장비를 부산에서 임차하여 해상항로로 반입하는 등 보통 장애요인이 아니었다. 공사용 장비가 반입되어도 배하나 집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본 공사를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현지 자연석 등을 채집하여 충자재를 양륙시켜 가설물을 시설하고 우선 간이점안시설부터 착수완성하였다.

어항공사는 주요자재가 석재이므로 석산을 검사하였으나 좋은 곳이 좀처럼 발견되지 않아 12차 개발한 석산은 포기하고 양답사에서 1977년 양륙운반이 가능한 장소인 추자면 묵리 104번지 지선 공유수면내 일대를 선정하였으나 이것 또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유는 피복석용 석재가 생선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위의 여론에 개의치 않고 관계당국에 출원하여 다시 개발에 착수하였다. 다행으로 석산의 품질은 강도와 비중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어 어항공사의 가장 비중있는 부분을 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진행은 예상과는 달리 어려운 난관이 많았다. 공사에 필요한 수많은 자재와 장비의 부속품 조달과 수리 등 한가지라도 없으면 현지구매가 불가능하고 제주나 부산 등으로 보내서 수리하고 올 때 까지는 그 장비가 소속되어 있는 과정은 올 스톱상태로 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

본공사 1차분에서부터 1988년 19차 공사까지 수많은 태풍이 내습하였으나 특히 1985년도에는 8월에 커트호( $m/s$  35m), 리호( $m/s$  29m), 10월에는 브렌다호( $m/s$  38m)가 계속 내습하여도 임직원과 기능공 전원이 더욱 결속하여 기어코 해내야 한다는 끈기로 계획 공정에 차질없이 시행하였으며, 최선의 품질관리 및 차질없는 공정관리와 인력관리로서 피해를 최소화한데 대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지방관서에서도 많은 격려와 찬사

를 아끼지 않았었다.

여러가지 악조건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고 출어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해 임직원 한사람 한사람의 의욕과 신념으로 어떤 난관도, 어떤 수렁도, 어떤 고통도, 그것을 헤치고 풀어가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19차 공사까지 큰 사고없이 발주청은 물론 수산청 현지주재하였던 감독관 여러분과 시공사가 혼연일체가 되어 투철한 사명감으로 격려하고 협조하여 주신데에 힘입었음을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한다.

본 항과 같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입지적 자연적 특수성이 있고 기상조건이 최악의 상태에 자주 맞닥뜨리는 곳에서의 어항공사는 본인의 짧은 경험으로는 공사용 주자재원을 제일(第一)생명으로 하여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재해예방에 큰 비중이라고 사료하는 바이다.

본 항의 시설물 구조체에 대하여 기술적인 논리를 기술치 못하고 평범한 사례로 두서없는 줄필을 게재해주시는 한국어항협회에 감사한다. △

